

30대 후반 고용률의 하락 원인 - IMF 세대의 불행?

양정승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반기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I. 들어가며

최근 들어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악화되었던 고용상황이 개선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9년 2월 57%까지 떨어졌던 고용률은 2012년 3월 현재 58.6%로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30대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고용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12년 3월 현재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0.2%p가 감소하여 다른 연령층이 모두 증가한 데 반해 유일하게 감소하였다. 특히 30~34세 연령층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 증가한 반면, 35~39세 취업자 수는 4.8% 감소하여 30대 후반의 고용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에서도 30~34세 연령층은 전년 동월 대비 0.7%p 증가한 반면 35~39세 연령층은 2011년 8월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3월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9%p 하락하였다(박세정, 2012).

30대 후반의 고용 개선이 부진한 이유로 경제위기 시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의 장기적 지속과 상대적으로 호경기에 대학생활을 보냄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 준비가 후속 세대에 비해 부족하여 인적자본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이유 등이 거론됨

이렇게 타 연령층에 비해 30대 후반의 고용 개선이 부진한 이유로는 경제위기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했던 것에 따른 부정적 영향의 장기적 지속, 또한 상대적으로 호경기에 대학생활을 함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 준비가 후속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인적자본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이유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세정(2012)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코호트별 비교 분석을 함으로써 2011년 30대 후반에 해당하는 1972년~1976년생 코호트는 다른 코호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이 낮은 편이며, 종사상 지위별로도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음을 보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 해당 연령대에 진입하면서 회복 정도가 매우 저조하고, 저학력층의 경우 상용직 비중보다 높은 임시일용직 비중을 보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증가하여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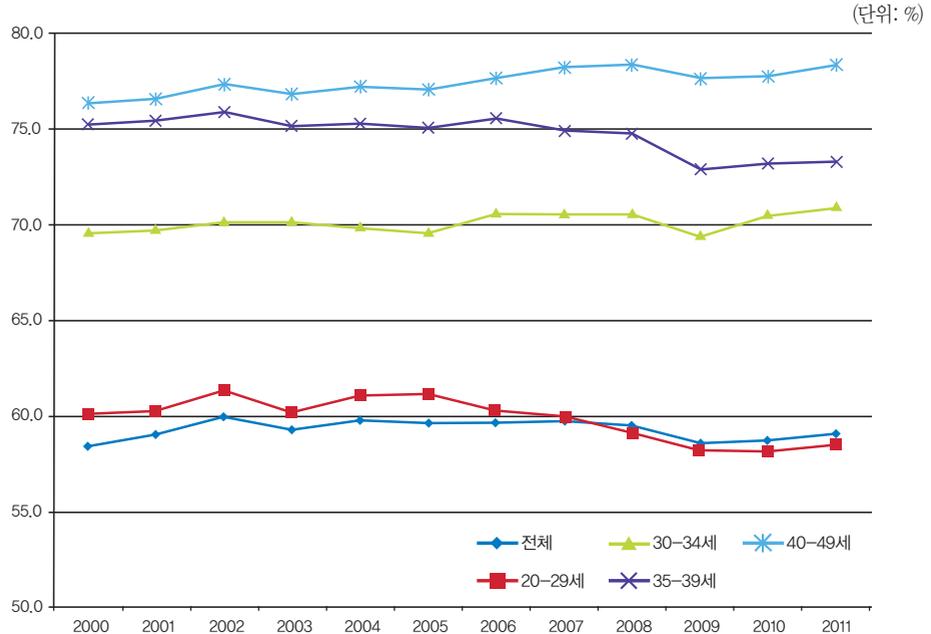
청년층과 고령층 문제는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에 그동안 충분히 분석되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떨어지는 30대 연령층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최근의 30대 후반 고용률의 하락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30대 후반 고용률 변화를 분해하여 그 원인을 좀 더 명확히 밝히고, 이러한 현상을 발생시킨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고자 했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근의 30대 후반 고용률 하락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

II. 30대 후반 노동시장의 변화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이러한 30대 후반 노동시장의 악화가 단순히 단기적인 경기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시장구조의 변화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장기적으로 30대 후반 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라고 한다면 특정 코호트의 효과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시장구조의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코호트가 장기적으로 계속 같은 연령대의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반면 고용악화가 주로 단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코호트 효과 혹은 경제위기 시에 노동시장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장기적인 부정적 효과의 문제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2000년 이후 연령별 고용률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00년 이후의 연령별 고용률 추이를 보면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상승 추세인 반면 30대 후반(35~39세)과 청년층(20~29세)의 고용률은 꾸준히 감소

[그림 1]은 효과의 장단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00년 이후 각 연령별 고용률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전체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연령층의 고용률이 상승하는 추세인 반면 30대 후반(35~39세)과 청년층(20~29세)의 고용률은 반대로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고령층(60세 이상)의 고용률도, 그림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동 기간에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고용률이 가장 높았던 2002년과 비교하였을 때, 2011년에 청년층은 2.8%p, 고령층은 2.2%p, 30대 후반은 2.6%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과 고령층의 고용상황 악화는 이미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고 전세계적인 현상인만큼 놀랍지는 않으나 30대 후반의 고용상황 악화는 이들의 경우 생산성이 인생의 정점 직전에 있는 세대라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반면 30대 초반(30~34세)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현재 30대의 문제가 주로 30대 후반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30대 후반 노동시장의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30대 후반을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령 현재 30대 후반의 노동시장의 위기가 주로 여성에 편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저학력 계층에 편중되어 있는지 등이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해분석이 유용하다.

30대 후반의 노동시장 현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30대 후반 집단을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근로자 집단 i 의 취업자 수를 E_i , 실업자 수를 U_i , 비경제활동인구를 N_i 라고 할 때 전체 고용률 e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 = \frac{\sum_i E_i}{\sum_i (E_i + U_i + N_i)} \quad (1)$$

한편 i 집단의 실업률을 u_i , 경제활동참가율 p_i , 인구비율을 ϕ_i 라 한다면, 이때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다.

$$\Delta e = \sum_i \{ (1 - u_i) p_i \Delta \phi_i + (1 - u_i) \phi_i \Delta p_i - \phi_i p_i \Delta u_i \} \quad (2)$$

식 (2)는 i 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율이 증가할수록 고용률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크고, 반대로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단순한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률의 증가는 집단들의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 인구비율의 변화분들의 가중합으로 볼 수 있고, 고용률 증가의 원인을 그 요인별로 분해할 수 있다.

표 1. 35~39세 고용률 변화의 단기분해(2011년 3월~2012년 3월)

(단위: %p)

	전체	남				여			
		계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	계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
고용률	-0.95	-0.49	-1.28	0.37	0.43	-0.46	-1.86	1.16	0.23
실업률	0.04	-0.12	-0.12	-0.07	0.07	0.17	-0.01	0.28	-0.10
경제활동 참가율	-1.10	-0.30	-0.19	0.04	-0.14	-0.80	-0.64	0.11	-0.26
인구비율	0.11	-0.07	-0.97	0.40	0.51	0.17	-1.20	0.78	0.5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2년 3월 35~39세의 고용률 변화를 그 구성 요인별로 분해한 결과 고졸 이하 저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저하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표 1〉은 이러한 분해 방법에 의하여 2011년 3월과 2012년 3월간의 35~39세의 고용률 변화를 그 구성 요인별로 분해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¹⁾ 전체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95%p 감소하였는데 실업률 변화는 이 중 0.04%p 고용률 증가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 전문대졸 인력의 실업률 감소가 가장 큰 고용률 증가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고용률 감소의 1.10%p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률 감소의 대부분은 경제활동참가율 저하에 기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0.30%p를, 여성이 -0.80%p를 설명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저하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특히 이 중에서도 고졸 이하 저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저하가 0.64%p의 고용률 감소를 설명하여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학력별 인구구성의 변화는 고용률의 0.11%p 증가를 야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을 통해 최근 30대 후반의 고용률 악화 원인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비슷한 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실업률 증가로 표현되는 저학력층 노동시장의 악화, 또한 고졸 이하 저학력층과 대졸 이상 고학력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저하 문제가 고용률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이러한 고용률 악화의 대부분이 경제활동참가율 저하에 기인하고 있다. 그중 고졸 이하 저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저하 문제가 심각하며, 대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

1) 각 항목의 수치와 증감 등의 자세한 값은 부표 A를 참조

가을 저하 또한 상당한 정도의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30대 후반의 고용률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2000년 이래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장기적 감소의 원인이 단기적 변화의 요인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률 감소의 단기적인 요인들과 장기적인 요인들이 일치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 35~39세 고용률 변화의 장기분해(2001~2011년)

(단위: %p)

	전체	남				여			
		계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	계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
고용률	-2.27	-0.05	-10.76	4.54	6.18	-2.22	-10.53	2.85	5.46
실업률	-0.06	0.07	-0.22	0.03	0.25	-0.13	-0.13	-0.02	0.01
경제활동 참가율	-2.36	-0.72	-0.87	0.03	0.13	-1.64	-2.51	-0.32	1.19
인구비율	0.15	0.60	-9.67	4.48	5.80	-0.45	-7.89	3.19	4.2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는 2001년과 201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두 시기 간의 35~39세 고용률 변화를 요인별로 분해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²⁾ 10년간 고용률은 2.27%p 감소하였는데, 실업률 변화는 이 중 0.06%p 고용률 감소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실업률은 호전되어 고용률을 0.07%p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실업률은 0.13%p의 고용률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10년간 시장상황은 30대 후반 여성에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작동하였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실업률이 고용률을 감소시킨 효과의 대부분은 고졸 이하 여성의 실업률 상승 효과였다.

지난 10년간 시장상황은 30대 후반 여성에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작동

2) 단기분해 결과와 마찬가지로 각 항목의 수치와 증감 등의 자세한 값은 〈부표 B〉 참조. 장기분해의 경우 단기적 변동 요인에 의한 오차(error)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다년도의 값을 평균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11년이라는 특정 해의 데이터를 사용하면 장기적인 경향이 아닌 2011년에 한정된 고유한 경기적 변동 요인의 영향력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시의성이기 때문에 다년도의 평균값을 사용하기보다는 1개 년도의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가령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값을 평균할 경우 이는 2011년 보다는 2010년을 중심으로 취한 것이기 때문에 2010년의 값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1년의 경우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데이터를 평균해야 하는데 아직 2012년 연간 데이터는 활용 가능 하지 않다. 시의성을 위해서는 경기적 변동 요인에 의한 오차를 감소시키더라도 2011년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고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저하가 현재 30대 후반 고용률 감소의 가장 주된 원인

경제활동참가율은 2.36%p의 고용률 감소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10년간 고용률 감소의 거의 대부분을 설명하였다. 남성의 경우 0.72%p의 고용률 감소를 야기하였는데, 전문대졸과 대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효과를 고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감소 효과가 초과하여 전체적으로는 고용률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에도 고졸자 시장상황 악화가 노동 시장으로부터의 이탈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우에는 대졸자만이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로 고용률 상승에 기여하였고, 고졸과 전문대졸 여성 모두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여 고용률 감소를 가져왔다. 특히 고졸 여성의 경우 2.51%p의 고용률 감소를 야기하여 현재 30대 후반 고용률 감소의 주된 원인이 여기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인구비율의 변화는 0.15%p의 고용률 개선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나 그 효과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하겠다.

Ⅲ. 30대 후반의 고용악화는 단지 IMF 세대의 불행인가?

이러한 최근의 30대 후반의 고용악화의 원인으로 IMF 세대의 코호트 효과가 주로 거론되고 있다. 2012년 현재 30대 후반인 1973~1977년생들은 IMF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에 대학을 다니고 IMF 경제위기가 터진 직후 대학을 졸업한 세대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IMF 경제위기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출한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쉽게 찾지 못해 하향 취업을 하게 되고, 이후 자신이 원하는 직장으로의 이직을 위해 꾸준히 새로운 직장을 찾고자 하나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용률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IMF 경제위기 이전에 대학을 다닌 이들의 경우 당시의 청년 취업 여건이 양호하였기 때문에 취업 준비가 후배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후배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고용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Kahn(2010)과 Oreopoulos et al.(2012)은 각각 미국과 캐나다를 대상으로 경기침체기의 대학 졸업이 이후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분

석하였는데, 연구결과는 임금에 부정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Oreopoulos et al.(2012)은 이러한 효과는 10년 정도가 지나면 사라진다고 주장한 반면, Kahn(2010)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격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여 장기 지속 여부에서는 상충되는 결과를 제시했다. 직업탐색이론에 의하면 대학 졸업 시 경기상황으로 인해 하향 취업을 하였다면 꾸준히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 시도를 하여 결국은 자신의 생산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러한 경제적 불이익의 효과는 사라지게 된다. 한편, 고용주 학습모형에 따르면 경력과 더불어 고용주들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보다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생산성에 근접하는 임금을 받게 된다(Stiglitz, 1975; Farber and Gibbons, 1996; Altonji and Pierret, 2001; Lange, 2007). 따라서 고용주 학습모형에 기초하여서도 장기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반면 Gibbons and Waldman(2004, 2006)은 경기침체 시 하향 취업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 적합한 훈련량과 기술보다 더 적은 훈련과 기술습득 기회만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경력을 쌓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대적으로 호경기 시 대학을 졸업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에서 경력을 시작한 세대보다 인적자본이 부족하여 장기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 이동을 통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한다는 가설에 대하여 상반되는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채창균(2006)은 노동이동을 통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가는 효과가 있음을 지지하는 결과를 도출한 반면, 박재민 외(2011)와 이병희(2003) 등은 각인 효과(scarring effect)에 의해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존재할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즉, 중소기업 등에 취업할 경우 장기적으로 대기업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의 부정적 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구의 선행연구들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제위기 시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의 장기적 불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임금데이

몇몇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기침체에 대학을 졸업하는 것은 임금에 부정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터에 근거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관심사는 임금에 아닌 고용의 문제이므로 서구의 선행연구들을 따르지 않고, 고용률 추이의 코호트별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고용에 장기적인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해보고자 하였다.

〈표 3〉은 2011년도의 연령을 기준으로 세대를 5년 단위로 나눈 후 세대별 고용률의 생애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각 행은 세대를 의미하며, 각 열은 각 세대의 연령을 의미한다. 가령 ‘30대 후반’ 세대의 35~39세일 때의 고용률은 73.3%이며 이것은 2011년의 고용률이다. ‘40대 초반’ 세대의 35~39세일 때의 고용률은 75.6%인데 이는 5년 전의 데이터인 2006년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 30대 후반의 고용률은 40대보다는 2%p 정도, 50대보다는 4%p 정도 낮은 수준이지만 60대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30~34세 고용률은 세대 간 격차는 존재하지만 현재 30대만 특별히 고용률이 나쁘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현재의 40대 초반보다는 오히려 1%p 정도 높았다. 오히려 20대 후반의 고용률은 세대가 흐름에 따라 더욱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년노동시장의 악화 문제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30대 후반과 40대 초반만을 비교한다면 IMF의 여파로 30대 후반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당시인 25~29세 고용률은 40대 초반보다 0.8%p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의 징후가 있지만 30~34세일 때는 이미 40대 초반의 고용률을 추월하여 장기적인 경제위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이후 다시 30대 후반에 고용률이 추락한 것은 경제위기의 장기적인 효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아야 함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세대별 고용률의 생애경로는 30대 후반 고용률의 추락 원인이 경제위기의 장기적인 효과가 아님을 암시

표 3. 2011년 연령 기준 세대별 고용률의 생애 경로

(단위: %)

세대 구분	연령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전체										
20대 초반	43.5									
20대 후반	49.2	69.7								
30대 초반	52.0	68.5	71.0							
30대 후반	59.4	66.7	70.7	73.3						
40대 초반	59.1	67.5	69.8	75.6	78.4					
40대 후반	54.5	65.5	72.6	75.5	78.4	78.4				
50대 초반	56.6	60.0	72.7	77.9	76.6	77.0	74.7			
50대 후반		59.4	69.7	77.5	80.6	76.5	72.6	67.4		
60대 초반			67.5	73.8	77.7	78.1	70.3	63.2	55.1	
남자										
20대 초반	37.2									
20대 후반	42.7	71.6								
30대 초반	44.7	72.6	87.9							
30대 후반	54.3	77.8	89.0	91.6						
40대 초반	54.7	84.7	91.2	92.2	92.2					
40대 후반	54.3	88.2	95.1	92.1	92.1	90.9				
50대 초반	65.3	83.7	95.5	95.4	91.0	90.6	88.2			
50대 후반		87.7	92.9	96.0	95.4	89.6	87.6	81.7		
60대 초반			93.4	93.1	94.9	94.1	85.1	77.4	69.6	
여자										
20대 초반	48.2									
20대 후반	53.9	67.8								
30대 초반	57.1	64.3	53.2							
30대 후반	63.0	55.2	51.6	54.1						
40대 초반	62.1	49.9	47.8	58.4	64.2					
40대 후반	54.7	42.0	48.9	58.4	64.3	65.6				
50대 초반	50.1	36.4	48.7	59.6	62.0	63.3	61.2			
50대 후반		31.2	45.5	58.1	65.2	63.2	57.6	53.2		
60대 초반			40.6	53.8	59.8	61.4	55.3	49.1	41.3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이러한 고용률의 흐름을 성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더욱 뚜렷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지속적인 청년노동시장의 악화 양상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40대 후반의 경우 88.2%에 달했던 25~29세 고용률이 현재 20대 후반 세대의 경우 71.6%로 16.2%p 추락하였다.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의 격차는 25~29세일 때 6.9%p이던 것이 30~34세일 때는 2.2%p로 좁혀지고, 35~39세일 때는 불과 0.6%p로 그 격차가 축소되었다. 또한 35~39세 고용률은 일정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서 30대 후반의 고유한 코호트 효과는 보이지 않는다. 종합하면 경제상황은 세대를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부정적으로 흐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세대 간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 이동에 의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간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30대 후반 남성 고용의 문제는 IMF 세대라는 특정 코호트의 문제가 아니라 30대 후반 남성 고용시장의 추세적인 악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현재 30대 후반 여성은 이전 세대의 20대 초반의 높은 고용률과 현재 젊은 세대의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높은 고용률 모두를 보이는 과도기적 세대의 모습을 띠

여성의 경우에는 청년층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세대의 젊은 여성에 비해 현재 세대의 젊은 여성의 뚜렷한 고용률 증가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고용률 증가 추세는 30대 초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젊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시기는 이전 세대보다 점차 늦어지고 있는데, 이는 여성들의 고학력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30대 후반의 여성은 이전 세대의 20대 초반의 높은 고용률과 현재 젊은 세대의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높은 고용률 모두를 보이고 있는 과도기적 세대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젊은 세대처럼 노동시장에 늦게 진입하지도 않았고, 이전 세대처럼 노동시장에서 이른 나이에 물러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30대 후반이 이전 세대에 비해 25~29세일 때, 그리고 30~34세일 때 고용상황이 나빠 보이지 않는 것은 여성의 고용상황 개선 효과에 의한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고용상황은 이들이 3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악화되어 오히려 이전 세대보다 고용률이 4%p 이상 낮은 상황에 머물러 있다. 즉, 최근의 30대 후반 고용률 부

진의 가장 큰 원인은 30대 후반 여성들의 고용률 하락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과 <표 1>, <표 2>, <표 3>에서 확인 가능했던 지금까지의 결과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30대 후반 노동시장은 남녀 모두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의 30대 후반 고용률의 감소는 주로 여성에 집중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남성의 경우 그 크기가 크지 않았다. 또한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남성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전 세대와의 고용률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추세적으로는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 고졸 이하 저학력 남성의 노동시장 지위는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 추세보다 현저한 현재의 남성 고용률 저하는 경기적 요인에 의한 순수한 단기적 현상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장기적 문제의 시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남성 고용률 저하의 주요한 원인이 IMF 세대라는 코호트 효과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의 경우 <표 2>에 따르면 장기적인 효과의 크기가 매우 뚜렷하므로 최근의 고용률 악화 또한 지난 10년간의 장기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활동참가율 저하가 가장 큰 요인이고, 그중에서도 고졸 이하 저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저하가 주된 요인임을 <표 3>에서 볼 수 있었다.

<표 4>는 30대 후반 고용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는 30대 후반 여성의 코호트 문제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2011년 연령 기준 세대의 생애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의 경로를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 두 학력층으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먼저 고졸 이하 학력층의 여성들을 살펴보면 현재 30대 후반의 여성의 경우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도 이전 세대보다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어, 이전 세대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저학력 여성들의 노동시장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 후반에 오히려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30대 초반에도 이전 세대와 동일한 수준의 참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있어 20대 후반의 미혼 여성이 증가한 것으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30대 후반의 고용률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30대 후반 여성들의 고용률 하락에 있음

30대 후반 고졸 이하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이전 세대에 비해 크게 하락

로 추정되며, 30대 초반에 이전 세대와 비슷해지는 것은 결혼과 출산이 늦어짐으로써 이전 세대보다 노동시장에서 육아로 전환하는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30대 후반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이전 세대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결국 늦은 결혼과 출산으로 육아에서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 시점이 지연되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실업률 증가로 표현되는 저학력 여성 노동시장의 여건 악화도 이들의 재진입 시기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2011년 연령 기준 세대별 여성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의 생애 경로

(단위: %)

	세대구분	연령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고 졸 이 하	실업률									
	20~24세	7.0								
	25~29세	8.5	5.6							
	30~34세	7.5	5.5	4.7						
	35~39세	3.8	4.2	3.0	2.7					
	40~44세	4.3	1.9	2.4	2.1	2.3				
	45~49세	4.0	1.7	0.9	2.3	1.9	1.4			
	50~54세		1.3	1.0	0.9	2.5	1.7	1.6		
	55~59세			1.0	0.7	0.6	2.0	1.5	1.3	
	60~64세				0.8	0.7	0.5	2.1	1.1	1.6
	경제활동참가율									
	20~24세	37.5								
	25~29세	45.4	59.4							
	30~34세	52.1	55.8	48.4						
	35~39세	61.5	49.4	48.6	53.4					
	40~44세	62.4	44.9	48.6	60.4	68.5				
	45~49세	56.5	39.5	48.8	61.9	67.0	69.0			
50~54세		35.6	49.5	60.8	65.6	65.0	62.9			
55~59세			46.1	59.8	66.9	65.0	59.0	54.2		
60~64세				55.1	61.7	62.8	56.9	50.4	42.9	

<표 계속>

	세대구분	연령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대 졸 이 상	실업률									
	20~24세	9.0								
	25~29세	11.9	4.0							
	30~34세	6.5	4.3	2.2						
	35~39세	6.4	3.5	1.6	1.2					
	40~44세	11.9	2.0	1.9	1.4	1.3				
	45~49세	23.5	3.5	1.3	1.5	1.0	1.3			
	50~54세		4.0	1.6	0.6	0.7	1.1	1.3		
	55~59세			1.6	3.2	2.0	0.6	1.5	1.2	
	60~64세				3.1	2.8	3.5	3.5	3.3	3.0
	경제활동참가율									
	20~24세	69.8								
	25~29세	71.9	77.8							
	30~34세	79.6	75.3	63.3						
	35~39세	79.5	69.7	60.6	59.5					
	40~44세	79.8	66.2	52.0	56.3	58.7				
	45~49세	67.2	57.3	53.1	49.5	60.4	58.5			
50~54세		48.6	48.3	55.8	49.1	60.1	58.1			
55~59세			41.6	40.2	51.9	57.9	52.0	50.2		
60~64세				33.6	37.7	45.3	45.9	38.3	28.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편 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층을 살펴보면 30대 후반의 여성 세대와 이전 세대를 비교해 볼 때 비슷한 실업률 추이를 보여 특별히 노동시장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보다는 최근의 청년층 여성의 실업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이들이 향후 여성 고용률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참가율 측면에서는 현재의 30대 대졸 여성들은 가장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시절뿐만 아니라 30대 후반인 현재에도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전히 이전 세대보다 높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전 세대와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연령 증가와 더불어 줄어드는 모습을

30대 대졸 여성들은 가장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고 있음

보이는데, 이는 고졸 여성과 마찬가지로 늦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하여 노동시장 재진입이 늦어지는 대졸 여성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 30대 후반 여성은 20대와 30대 초반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였다는 점과 저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시기가 이전 세대에 비해 지연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임

이상에서 살펴본 여성 노동시장의 추이를 정리하면, 이전 세대는 20대 후반과 30대 초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로 특징지어진다면, 현 30대 후반은 20대와 30대 초반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였다는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한편, 이전 세대의 경우 30대부터 빠르게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현 30대 후반은 저학력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 재진입이 이전 세대보다 지연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들의 경우 재진입 지연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여성들이 활발히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V.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변화의 시사점

젊은 층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여성의 고학력화 그리고 평균 결혼연령이 늦추어졌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전 세대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성역할에 대한 편견으로 상대적으로 현재의 30대 후반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저조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모든 세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전형적인 패턴인 M자 형태의 곡선을 관찰할 수 있으나, 이전 세대의 경우 현재의 30대 후반 세대보다 이른 나이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했다가 보다 빠른 나이에 재진입한 데 비해, 현재의 젊은 세대의 경우 노동시장 이탈 연령은 갈수록 늦어지고 있고, 30대 후반의 경우 재진입 시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30대 후반 여성들이 젊은 시절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표 4>의 고용률 패턴을 보았을 때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세대가 지날수록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인식과 성역할에 대한 인식변화와 더불어 여성의 결혼시기가 전반적

으로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짐작된다. 40대 이후 세대가 현재 세대보다 비교적 이른 30대 후반에 빠른 속도로 노동시장으로 돌아오는 것은 이들이 결혼을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하고 출산과 양육의 부담 또한 상대적으로 일찍 마쳤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30대 후반은 결혼이 늦어지면서 출산과 양육 시기 또한 늦어졌을 것이고, 그러한 연유로 아직 노동시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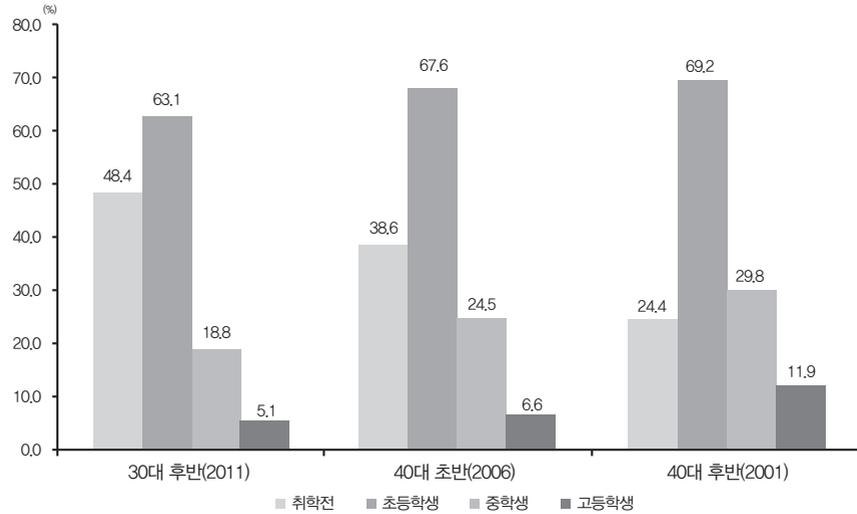
[그림 2] (가)는 2011년 연령 기준으로 30대 후반과 40대 초반, 40대 후반 세 코호트에 대해서 해당 코호트의 연령이 30대 후반일 때의 해당 학교급별 자녀를 둔 가구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30대 후반과 40대 초반 세대의 자료는 2011년과 2006년의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였다. 40대 후반 세대의 경우 2001년 자료가 필요한데, 2001년 『가계동향조사』가 전국이 아닌 도시가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교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전국을 포괄하는 가구대상조사인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2000년의 소득과 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2001년에 행해졌기 때문에 가구 관련 정보는 2001년 데이터로 볼 수 있다.

현 30대 후반은 이전 세대보다 취학 전 아동을 둔 비율과 초산 연령이 높은 특징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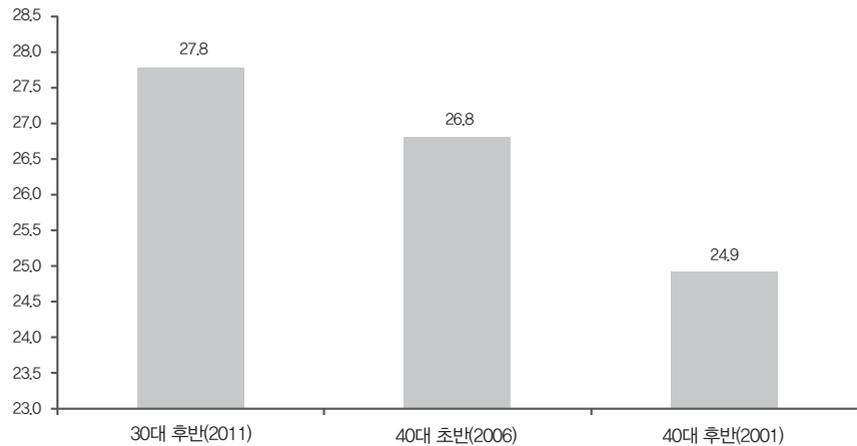
[그림 2] (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 30대 후반 세대의 특징은 이전 세대와 비교하였을 때 취학 전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40대 초반보다는 9.8%p, 40대 후반보다는 24%p 높다는 것으로, 이는 늦어지는 결혼 연령과 출산 연령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학 전 자녀와 초등학교생 자녀가 여성의 노동공급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반대로 40대 이상의 경우 젊은 시절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았지만 결혼 연령이 낮아 출산과 양육 또한 현재 30대 후반보다 이른 나이에 마치고, 경제적인 이유와 여성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30대 후반부터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는 [그림 2] (나)에서, 현 40대 후반을 대상으로 이들이 30대 후반이었을 당시 첫 출산 연령을 조사한 결과인 24.9세보다 현재의 30대 후반은 2.9세 정도가 늦어졌음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구데이터는 주로 기혼 여성에 대한 첫 출산 연령만이 파악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의 평균 첫 출산 연령은 더욱 높을 것이다.

그림 2. 2011년 연령 기준 세대별 학교급별 자녀를 둔 비율과 첫 출산 연령

(가) 학교급별 자녀를 둔 비율



(나) 첫 출산 연령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현 30대 후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보육비 부담일 가능성이 있음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저하로 인한 고용률 감소 효과가 고졸 이하 여성층에 집중되었던 점, 저학력 여성층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인 점, 또한 실업률과 일자리의 질이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하면 현재 30대 후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보육비 부담일 것으로 생각된다. 저학력 여성 노동시장의 상당 부분이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높은 보육비용은 여성들의 유보임금을 상승시켜 노동시장에 참여하기보다는 스스로 양육하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육비와 양육의무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30대 후반 여성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탄력적인 근로시간 운영의 제도화 등을 통하여 여성의 노동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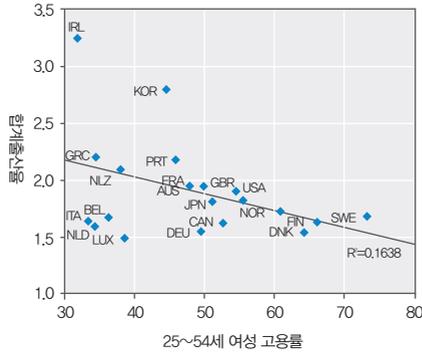
더욱이 생애경로에서 생산성의 최정점을 향하여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을 시기에 경력의 단절을 경험하고 뒤늦게 다시 저점에서 시작하는 지연된 M자형의 경제활동참가율 곡선은 여성의 임금 또한 M자 형태를 띤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후기 임금 고점이 이전 세대보다 낮은 지점에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생애 전체를 놓고 판단하였을 때 생애소득의 손실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생산성이 높은 연령층의 노동시장 이탈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효율성 저해로 이어진다.

한편 김대일(2008)은 고학력 자녀를 둔 경우에도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또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여성의 노동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줄어들거나 심지어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주장에 근거한다면 현재의 여성의 고학력화 현상은 30대 후반 여성 고용률의 악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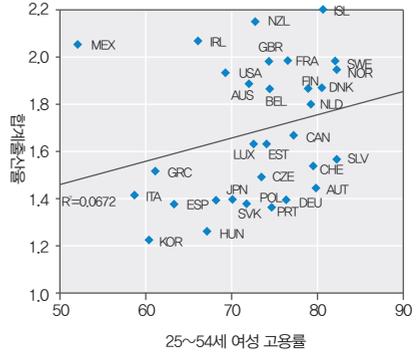
보육비와 양육 의무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30대 후반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탄력적인 근로시간 운영의 제도화 등을 통하여 여성의 노동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

그림 3. OECD 국가의 여성 고용률과 합계출산율의 관계

(가) 1980년



(나) 2010년



출처: OECD, Stat.

한편, [그림 3]은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의 여성 고용률과 합계출산율의 조합을 평면에 나타낸 것이고, 그림의 직선은 이러한 관계의 선형 추세를 표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과거 1980년에만 하더라도 OECD 국가들조차 일반적으로 출산과 여성 고용은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출산율이 높은 국가는 여성들의 고용률이 낮고, 반대로 여성 고용률이 높은 국가는 출산율이 낮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010년에는 이러한 관계가 역전되어 오히려 여성 고용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 또한 높은 관계를 보여준다.

이와 같이 관계가 변화된 것은 OECD 국가들이 여성의 취업에 미치는 출산과 양육의 부정적 효과를 적절한 정책적 대응으로 최소화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고용률과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 출산이 여성의 취업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키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OECD 국가에 비해서 고용률과 출산율이 낮으므로 그 대책 마련이 시급

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지금까지 최근 노동시장에서 30대 후반 연령층의 고용 개선이 부진한 원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30대 후반의 고용 부진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장기적 추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 이후 30대 후반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이들 연령층의 고용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30대 후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에 있다. 특히 고졸 이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저하는 장기적인 고용률 감소분의 거의 대부분을 설명하였다.

셋째, IMF 경제위기 시에 노동시장에 진입했거나 대학을 다닌 세대라는 점에서 겪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은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단기적으로 존재했으나, 30대 후반 연령층 남성의 경우 이러한 효과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넷째, 현재의 30대 후반 여성의 고용률 악화는 IMF 세대의 코호트 효과가 아니라 늦은 결혼과 출산, 저학력 여성 노동시장의 여건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장기적인 추세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30대 후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촉진하는 것이 현재의 30대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선결과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정책적 대응이 요청된다.

우선,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경제활동참가율을 억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늦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하여 30대 후반에 주로 양육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전 세대보다 늦은 연령에 경력이 단절되기 때문에 이는 사회적으로도 인적자본의 낭비를 가져와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금전적·비금전적인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사회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 30대 후반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경제활동참가율 저하가 저학력 여성에 집중되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금전적 부담을 지원하는 것에 상당하는 정책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

현재의 30대 후반에서 나타나는 고용 부진은 ① 장기적 추세이며, ②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에 주로 기인하고 있으며, ③ IMF의 장기적 효과가 아니라 ④ 여성의 늦은 결혼과 출산, 저학력 여성 노동시장의 여건 악화 등이 맞물려 나타난 결과

양육 부담 완화, 저학력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성을 위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또는 유연 근로시간제 도입, 근로 중 양육을 위한 시간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

이다. 특히 사회서비스업종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사회서비스업종은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여성 일자리 창출에 친화적이다. 아직도 성역할 구분 인식이 남아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하면, 사회서비스업종의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여성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양질의 사회서비스업종 일자리의 증대는 그 자체로 여성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여성 고용을 촉진할 것이다. 즉, 기존에 출산 및 양육의 부담으로 노동시장 참여에 제한을 받은 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 구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셋째, 여성들을 위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혹은 유연 근로시간제의 도입이 시급하다. 근로시간 선택의 기회를 넓혀 양육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이 근로시간 중에 양육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직장 내 탁아시설 및 보육시설 설치를 법제화하는 것은 기업측에 지나친 부담을 지울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을 나누어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근로시간 중 일시 퇴근하여 자녀를 별도의 보육시설에 맡긴 후 돌아와서 보충 근무를 하는 형태로 탄력적인 근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과 높은 보육비용 때문에 노동시장에 진출하지 않았던 한계적인 여성 근로자들에게 근무시간 중 보육을 위한 일정 시간의 외출이 보장될 경우 이는 임금 인상 혹은 보육비용의 인하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탄력적 근무시간 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대일(2008).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과 자녀 교육」, 『노동경제논집』, 31권 2호, pp. 73-102.
- 박세정(2012). 「30대 후반의 고용 현황, 특정 세대의 현상인가?」, 『고용이슈』, 5권 3호, pp. 72-85.
- 박재민 · 김영규 · 전재식(2011). 「대졸자의 중소기업 취업이 장기적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노동정책연구』, 11권 4호, pp. 29-53.
- 이병희(2003).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채창균(2006). 「기업규모와 청년층 노동이동」, 『직업능력개발연구』, 9권 1호, pp. 81-103.
- Altonji, Joseph G. and Charles Pierret(2001). “Employer learning and statistical discrimin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6, No. 1, pp. 313-50.
- Farber, Henry S. and Robert Gibbons(1996). “Learning and wage dynamic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1, No. 4, pp. 1007-47.
- Gibbons, Robert and Michael Waldman(2004). “Task-specific human capital”,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4, No. 2, pp. 203-207.
- _____ (2006). “Enriching a Theory of Wage and Promotion Dynamics inside Firms”,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24, No. 1, pp. 59-107
- Kahn, Lisa B.(2010). “The long-term labor market consequences of graduating from college in a bad economy”, *Labor Economics*, Vol. 17, pp. 303-316.
- Lange, Fabian(2007). “The Speed of Employer Learning”,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25, No. 1, pp. 1-35.
- Oreopoulous, Philip, Till von Wachter, and Andrew Heisz(2012). “The Short- and Long-Term Career Effects of Graduating in a Recession”,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Vol. 4, No. 4, pp. 1-29.
- Stiglitz, Joseph E.(1975). “The Theory of ‘Screening’, Educ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5, No. 3, pp. 283-300.

부록

표 A. 35~39세 고용률 변화의 단기분해(2011년 3월~2012년 3월)

(단위: %p)

			2011.3	2012.3	증감	증감분해
고용률			73.49	72.54	-0.95	-0.9470
남자	고졸 이하	실업률	4.64	5.27	0.63	-0.1199
		경제활동참가율	92.63	91.65	-0.98	-0.1930
		인구비율	21.26	20.15	-1.10	-0.9675
	전문대졸	실업률	2.26	3.04	0.78	-0.0692
		경제활동참가율	95.46	95.88	0.42	0.0380
		인구비율	9.03	9.46	0.43	0.3965
	대졸 이상	실업률	1.94	1.61	-0.32	0.0659
		경제활동참가율	96.51	95.83	-0.69	-0.1422
		인구비율	20.83	21.36	0.53	0.5052
여자	고졸 이하	실업률	4.60	4.72	0.11	-0.0143
		경제활동참가율	54.93	52.05	-2.88	-0.6433
		인구비율	24.64	22.29	-2.35	-1.1977
	전문대졸	실업률	7.49	2.04	-5.45	0.2756
		경제활동참가율	54.58	55.82	1.24	0.1084
		인구비율	8.42	9.91	1.48	0.7788
	대졸 이상	실업률	1.86	2.84	0.98	-0.0955
		경제활동참가율	60.58	58.93	-1.65	-0.2632
		인구비율	15.82	16.83	1.01	0.5902
오차항						-0.000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B. 35~39세 고용률 변화의 장기분해(2001~2011년)

(단위: %p)

			2001	2011	증감	증감분해
고용률			75.53	73.26	-2.27	-2.2722
남자	고졸 이하	실업률	3.55	4.43	0.88	-0.2168
		경제활동참가율	95.12	91.68	-3.45	-0.8748
		인구비율	31.84	21.05	-10.79	-9.6730
	전문대졸	실업률	3.18	2.69	-0.49	0.0311
		경제활동참가율	95.27	95.73	0.46	0.0298
		인구비율	4.25	9.09	4.83	4.4773
	대졸 이상	실업률	3.06	1.58	-1.48	0.2540
		경제활동참가율	95.75	96.48	0.73	0.1269
		인구비율	14.81	20.98	6.18	5.7990
여자	고졸 이하	실업률	2.50	3.23	0.72	-0.1296
		경제활동참가율	62.07	53.71	-8.35	-2.5121
		인구비율	37.98	23.95	-14.04	-7.8927
	전문대졸	실업률	3.35	3.85	0.50	-0.0168
		경제활동참가율	58.84	53.29	-5.54	-0.3204
		인구비율	3.05	8.95	5.90	3.1897
	대졸 이상	실업률	1.56	1.36	-0.20	0.0132
		경제활동참가율	49.51	59.57	10.06	1.1920
		인구비율	8.07	15.99	7.91	4.2529
오차항						-0.001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